

# 현대 실내건축의 벽의 오브제(object)적 특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Wall as Objects in Contemporary Interior Architecture

최선영\* / Choi, Sun-Young

김도훈\*\* / Kim, Do-Hoon

이정욱\*\*\* / Lee, Jeong-Wook

### Abstract

The modern architecture has to find more essential configuration order rather than the spatial order in the reasonable point. In other side, paintings and sculptures as a part of the building in the past become a pure art and develop an abstract art. Also they make many affects on the modern architecture as a paradigm. New material has brought to the new forms and the changes of the overall culture and art. One of the new changes has made the object that is one of unique culture symptoms in the 20C and the general part of the modern art includes it. The wall that limits the inside area through mass and volume before the recent times had treated as the object to express the special mean and character. However, the wall has developed as a component that consists of the internal space through surface and volume rather than mass or structure since the recent times. Now, I survey the objective tendency of the wall in the modern interior architecture mainly focused on the relation between object in the abstract art and wall inside.

키워드 : 오브제, 벽

## 1. 서론

### 1.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현대는 변화의 속도가 날로 가속화되어가고 있는 혼란과 다양성의 시대라 할 수 있다. 다원화된 사회문화의 흐름 속에서 타 영역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상호간에 많은 영향을 주고 받았으며, 20C 미술에서 나타나는 회화적 요소들이 실내에 나타나는 계기가 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20C 독특한 문화양상의 하나인 '오브제(object)'는 추상예술전반 모든 경향에 깊이 침투했으며, 이러한 오브제는 항상 그것이 놓인 공간과 장과의 관계에서 사고되고 의미가 주어지게 된다. 오브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공간이며, 이러한 공간을 어떻게 형성하는가 하는 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실내건축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하여 역사는 수많은 구조물을 착안하였으며 '벽'은 그 원류하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공간을 형성함에 있어 벽은

필수적이며, 또 벽을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따라 공간의 성격이 달라진다. 오브제에서 나타난 표현수법들은 공간적으로 재해석되어 기존 관념을 파괴시키고 자유로운 창조적 사고를 창출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경향은 오브제와의 밀접한 접촉을 통해서 벽에 새로운 창조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개념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는 실내건축의 공간 구성에 있어서 필수적 요소인 벽과 오브제의 조형적 특성의 상관성에 관한 체계적인 이론을 정립하는 것이 유효하리라는 데서 출발한 것이다.

### 1.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추상예술 전반 모든 경향에 영향을 미친 오브제의 이론적 전개와 조형적 특성을 추출하여 그것과 연관지어 실내건축 공간구성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인 벽의 요소적 특성과 형태·공간적 특성을 중심으로 상관성을 제시한다.

## 2. 오브제의 이론적 배경 및 조형적 특성

20C 추상예술은 제(諸)시대의 사회적 연결성이 두드러지게

\* 정회원, 경원대학교 실내건축학과 석사과정

\*\* 정회원, 경원대학교 실내건축학과 석사학위취득

\*\*\* 이사, 경원대학교 실내건축학과 교수

나타나고, 사상적으로도, 또 기술적으로도 아주 복잡다단한 변화를 반영한다.

추상미술에서 빼놓을 수 없는 오브제는 입체주의에 전면적으로 등장한 다다에 와서 레디메이드의 출현으로 단일한 의미를 갖게되었다. 오브제는 초현실주의를 거쳐 회화도 조각도 아닌 새로운 조형의 개념을 탄생시켰으며, 제2차 세계대전 후 구미 화단에서 형이상학적인 주제에 의해 밀렸던 오브제에 대한 관심은 50년대를 지나면서 팝 아티스트, 네오 다다주의자, 누보 레알리스트들에 의해 다시 활성화되었다. 그들은 콜라주, 앳상블라주, 영화적 수법인 몽타주(Montage), 클로즈-업(Close-up), 대중 이미지(Popular Image)의 반복과 같은 수법을 사용하였으

바 미니멀 아트이며, 미니멀리즘과 거의 동시에 발생한 개념미술이나 대지미술, 환경미술, 신체미술 등도 넓은 의미에서 오브제 영역의 확산과 확대에 기여했다. 이러한 경향은 서로 공존하며 각기 독특한 표현기법이나 의미를 추구하였고, 현재 더욱 다극화된 모습으로 현대 조형예술의 다원화 양상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오브제의 조형적 특성은 <표 2> 같이 추출되어지며, 그 특성은 크게 6가지로 나눌 수 있다

### 3. 벽의 특성과 표현양상

입체주의에서 시작된 다시점과 중첩같은 오브제의 조형적인 특성이 구성주의 건축을 시작으로 추상예술사 전반에 걸친 다양한 조형특성으로 건축의 구성원리와 표현양상에 영향을 미쳤다. 추상예술에서 오브제의 등장으로 영향을 받기 시작한 건축은 근대 이전의 형식적인 벽의 표현양상에서 오브제성을 띄기 시작한 벽으로 그 의미가 변화되어 갔다.

근대이후 변화된 벽의 표현체계는 현대에 이르기까지 연속되는 개념 속에서 새로운 개념들이 추가되어 갔는데, 여기에는 근대의 이념들을 여전히 추구하는 경향과 현대의 새로운 양상에 의해 변화된 이념들을 추구하거나 또는 근대이전의 개념들을 다시 도입하려는 경향들이 일정한 하나의 방향이 아닌 다중적으로 겹쳐져서 나타난다.

건축요소에서 표현된 벽의 의미 분류를 살펴보면 벽의 요소적인 측면들인 색채, 재료와 질감, 빛과 그림자, 분절, 스케일과 변형을 통해 나타나는 특성은 다양하게 나타나며, 이러한 특성을 통해 도출되는 의미들은 기능적이거나 상징적인 특성을 지님과 동시에 벽을 통해 다양하게 중첩되어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이 나타나는 벽의 요소적 특성을 통한 벽의 의미체들은 하나의 표현특성에서 내포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표현특성을 통해 나타나며, 다양한 특성의 혼성을 통해 다중적인 벽의 의미가 나타나는 것이다.

벽을 통해 나타나는 형태·공간적 특성과 의미를 분석할 때 단지 벽 자체만의 요소적 특성만으로는 한계를 가질 수 있으며, 벽과 다른 수직적인 요소와의 관계를 동시에 고려해야 올바른 벽의 의미를 도출해 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건축공간에서 벽이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요소 중 수직적인 요소인 벽, 기둥, 개구부 등 다른 건축적인 요소와의 관계를 통한 벽의 표현특성 분석과 의미의 도출은 벽을 통해 나타나는 의미를 분석함에 있어 필요한 조건이 될 것이다.

벽의 요소적 특성과 구성적 특성을 중심으로 분류한 벽의 특성을 오브제의 조형원리에 비추어 분류하여 본 결과, 벽의 특성과 오브제의 조형특성과의 표현양상별 상관관계를 종합해보면 <표 3>과 같다.

<표 2> 오브제의 조형적 특성

사 조	조형적 특성	특 성
입체주의	·다시점 ·파피에콜레, 콜라주 - 중첩 ·역동성	다시점 - 대상의 해체, 조립을 통한 공간인식
미래주의	·역동성 ·시간성 ·다이내미즘(Dynamism)	중 첩 - 화면효과 극대화, 구체감 강조
데스틸 구성주의	·순수기하학적조형 ·역동성 ·기하학적 구조 ·색채의 함축성 ·비대칭적 질서	독립성 - 미적의도 배제, 완전한 독립적 존재
절대주의	·반중립성 ·부유성	역동성 - 긴장된 역동적 효과, 동적인 감각 표출
다다이즘	·독립성 ·비물질성	대중성 - 일상성 그 자체로 등장, 대중 산업화에 의한 재료등장
초현실주의	·비물질성 ·데페이즈망-시각적 충격, 신비감 ·상징적이고 시적인 오브제	단순성 - 기하학적 형태지향
누보 레알리즘	·일상적, 대중적 오브제 ·앳상블라주와 전위예술로서의 표현	
팝아트	·에로티시즘의 표현	
키네틱 아트	·역동성 ·시지각성 ·변형성	
미니멀 아트	·단순성 ·명료성 ·반복성 ·사물성 ·순수성	
환경예술	·역동성 ·중첩-콜라주의 확대 개념	

며, 네오 다다에 속하는 로버트 라우센버그(Robert Rauschenberg)의 콤바인 회화(Combine painting)는 추상표현주의와 팝아트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였다. 추상미술의 전통에서 회화자체를 오브제화 함으로써 재현대상과 재현결과를 일치시킨 경우가 이른

<표 5> 벽의 특성과 표현양상

표현양상 벽의 특성	다시점	중첩	역동성	단순성	독립성	대중성
색채	내부와는 무관한 외부 표면의 기능적, 상징적 표현	공간의 연결과 전이에 의한 시각적, 현상적 중첩	공간의 연결과 암시를 위한 방향 지시적 색채	백색 위주의 색채와 기능적인 색채	파스텔톤적 색채와 원색에 의한 벽의 가벼움	전체적인 양상속에서 색채의 조화와 감각적 사용
재료, 질감	현대적인 재료를 통한 새로운 이미지 형성	재료자체 투과를 통한 투명성에 의한 중첩	패턴과 양감에 의한 방향성	죽물적인 재료와 질감	새로운 재료를 통한 피막형성, 다양한 패턴에 의한 벽의 빛물 질화	자연적인 재료와 인공적인 재료의 혼성을 통한 변형과 순간성
요소적 특성						
빛, 그림자	다중시점, 시차에 의한 외부 벽면 구성 빛의 반사와 변형	내부와 외부 공간의 투명한 연결	빛과 그림자의 대비, 내부와 외부의 결합을 통한 외부로의 방향성	자연적인 빛과 재료를 통한 미니멀적 표현, 순수한 빛과 지역적인 요소의 결합	빛에 의한 양감과 중량의 제거, 재료의 비물질화	재료의 적극적인 사용에 의한 빛의 혼성, 반사, 왜곡
분절	면과 볼륨의 분절을 통한 2차원, 3차원적 구성	면과 볼륨의 분절	수평적, 실제적 분절	등방형의 볼륨과 면, 매스의 혼합	매스와 볼륨의 분절에 의한 벽의 가벼움	볼륨의 혼성적인 분절
스케일 변형	표면 처리에 있어 내부와는 상관없는 자유롭고 혼성적 변형	인간적인 스케일과 도시적 스케일의 혼용	벽의 형태적 공간적 방향성	추상적 이미지 주변지형과의 대응	얇은 피막과 인간적인 스케일을 통한 비중력성	속의 변형에 의한 공간감의 변화, 속도감의 고려를 통한 스케일의 변형
벽과 벽	면과 볼륨에서 표면의 자립	면과 볼륨에 의한 중첩된 투명성	내부에서 외부로의 방향성	외부지향적인 공간창출 내부와 외부의 적극적인 연결	매스적인 벽을 면적인 요소로 변형	왜곡된 벽의 배치를 통한 공간의 중첩과 혼성을 통한 질서
구성적 특성						
벽과 개구부	개구부와 벽의 혼합과 개구부의 변형, 암시	그림(개구부)과 배경(벽)의 관계	개구부의 명확한 형태에 의한 방향성	개구부를 통한 공간의 연속성	다중소점에 의한 벽의 비물화	이질적인 재료와 형태를 통한 공간의 연결과 단절
벽과 기둥	벽과 기둥의 분리를 통한 표면자체의 의미 내포	기둥의 변형과 적극적인 사용으로 내·외부의 투명한 공간 형성	기둥자체의 형태에 의한 방향성	과거의 기억과 회상에 의한 형태와 공간의 한정	벽과 기둥의 분리로 인한 가벼운 피막	기둥의 기능과 의미의 변형과 오브제적 효과

## 4. 벽과 오브제의 공유개념의 분류

### 4.1. 다시점

공간 개념에 영향을 미친 추상예술의 가장 중요한 양상은 다시점 경향인데, 다시점은 하나 이상의 많은 시점들의 공존을 시각화하는 개념으로, 하나의 평면 위에 시간이라는 4차원 상의 미학적 경험의 지속을 표현하는 것이며, 공간에서 나타나는 벽에 의한 다시점은 하나의 공간에 여러 개의 소점을 둠으로써 공간이 갖는 인상에 역동적인 변화를 주는 것이다.

피카소의 「누드」와 「아비뇰의 처녀들」이란 작품은 인체

를 다양한 방향과 시각에서 본 것을 결합한 것으로서 형태들을 분해하는 효과를 표출하고 있으며, 얼굴을 재구성하고 있다. 또한 브라크의 「레스타르크의 풍경」이란 작품은 다각적인 시점을 화면에 재구성하는 방법으로 회화를 자연의 종속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였다. 이처럼 대상을 단단한 형태의 집합으로 보고 분해와 재결합을 시도함으로써 새로운 구성을 창조하는 것은 회화의 공간인식에 기초가 되었다.



<그림 4-1>  
George Braque  
「레스타르크의 풍경」

르 꼬르뷔제의 빌라 사보아의 경우 단면에서 볼 때, 수평적인 요소들은 램프에 의해 서로 연결되고 있으며, 내외벽 공간의 통합이나 수직, 수평의 통합이 너무 완벽하게 되어있어 한 장 또는 몇 장의 사진을 가지고는 도저히 그 효과를 파악할 수 없는 다양한 내부공간을 경험할 수가 있다. 또한 원근법적 배경에서의 정면치중을 벗어나 상하좌우 모든 면에서 서로 다른 다양한 건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 4.2. 중첩

오브제의 중첩을 의미하는 콜라주, 파피에 콜레 등은 더욱 공간적 깊이감, 색채의 특징, 물체의 질감을 강조함으로써 잃어버린 구체적 이미지를 회복하고 풍부한 조형의 성과를 이루게 하였다. 피카소의 「압생트 잔(Glass of Absinth)」은 이러한 기법의 대표적 작품이다. 1912년 브라크는 「과일접시와 유리잔이 있는 정물」에 나무의 나이테가 인쇄된 벽지 및 조각을 부착시켰는데, 이것은 입체주의에서 파피에 콜레를 사용하는 선례가 되었다. 미래파의 기수 중 한 사람인 보치오니(Umberto Boccioni)



<그림 4-2> Pablo Picasso  
「압생트 잔」

는 「달리는 말의 역동성」에서 입체파의 오브제의 활용을 한 발 더 밀고 나갔다. 쿠르트 슈비터스(Kurt Schwitters)는 콜라주 작업의 개념을 극단적으로 밀고 나가 「Merz」라는 이름의 계속해서 성장하고 생성되는 거대한 작품을 만들어낸다. 공간에서 중첩은 투명성, 투과성, 모호성, 다층성, 중합, 상호관입 등과 함께 종종중의어로 사용하고 있다. 중첩은 한 단위가 부분적으로 그것의 위에 있는 다른 단위에 가리어질 때 생기는 것으로 원래 의미와는 다른 형태의 미를 창출하고, 중첩에 의한 공간은 깊이를 가지게 되어, 이 깊이는 투명성을 유발한다.

르 꼬르뷔제는 그의 <5원칙>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벽체



<그림 4-3>  
Kurt Schwitters  
「Merz Picture 25A」



<그림 4-4> Mies van der Rohe  
「바로셀로나 파빌리온」

의 구조적 해방으로 인한 보이드(void)와 솔리드(solid)의 자유로운 구성으로 건물의 내외부의 통합을 이루고 있으며, 모든 면으로 개구가 있어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이 서로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완입이 되고 있으며, 불투명한 벽체와 투명한 벽체(대형유리창)의 중첩으로 만들어지는 입면은 흡사 순수주의(Purism)의 회화를 연상케 한다. 미스의 바로셀로나 파빌리온에서도 또한 기능적이면서 현상적인 투명성의 구체적인 실현을 볼 수 있다. 마이클 그레이브스(M. Graves)의 절단된 벽면들, 그리고 리차드 마이어(R. Meier)의 가입면(假立面)들 사이로 상상되는 면들의 적층, 연속의 감각은 이런 상호관입의 투명성의 좋은 예가 된다. 반면 램 쿨하스의 파리 도서관에서 보이드한 것이 아닌 솔리드한 것으로 인지되면서 투명성은 반투명과 반사성으로 변화하며 근대의 절대적인 투명성과 반대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 4.3. 역동성

역동성은 입체주의 화가들의 작품의 경사선에 의한 정적이고 긴장된 역동성에서 미래주의, 다다를 거치면서 동적인 감각이 표출되기 시작했고, 키네틱 아트에 와서는 움직임에 포함하게 된다. 최초의 작품의 예로는 마르셀 뒤샹이 1913년에 자전거 바퀴를 사용하여 제작한 <모빌>이라는 조각을 들 수 있으며, 그 후 1922년 나움 가보가 <키네틱 조각>이라는 이름의 작품을 발표하였다. 이 후 현대로 접어들면서 이와 같이 역동적 움직임을 이용하는 예술은 과학시대와 신기술을 배경으로 예술의 다양한 표현양식에 확장을 제공하게 되어 라이트 아트(Light Art), 행위예술(performance Art), 환경예술(Environmental Art) 등과 연관되어 표출되었다. 특히 공간과 환경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새로운 예술적 의미는 조형예술의 영역을 확장시켜 거대한 공간개념을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경향이 필연적으로 현대의 실내공간에 도입되어 역동적 표현성을 가지게 됨으로서 예술형식의 자유로운 통합적 측면으로 발전된 것이다.

실내건축공간에서 역동성은 수평선과 공간의 방향성, 즉 실내건축형태의 중심성을 부정하고 주변적 구성을 지향하는데, 이러한 공간적인 방향성 외에 벽 자체가 하나의 방향성을 지닐

수 있으며, 르 꼬르뷔제의 사보아 저택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사보아 저택에서 기둥과 벽을 통한 명확한 방향의 지시는 3종류의 기둥 형태와 벽의 배열을 통해 나타나며, 이러한 형태적인 방향성은 반드시 운동감을 일으키는데, 이것은 앙리 시리아니의 토르시의 유치원에서 그는 벽을 통해 건물의 볼륨을 한정함과 동시에 건물에 사람이 인지 할 수 있도록 유발되어 있다.



<그림 4-5> Le Corbusier  
「빌라 사보아」

### 4.4. 단순성

단순성은 명쾌한 기하학적 비례와 재료의 진실한 사용을 한 데스털과 개인적 감정과 주관적 표현을 극도로 배제한 것으로 순수하고 무표정한 형태의 반복을 특징으로 한 미니멀 아트의 오브제에서 발견된다. 몬드리안과 말레비치의 작품의 기본원리는 축약이라는 방법으로 기하학적 단순성을 표현하는 것이었으며, 타틀린(Baldir Tatlin)은 「제3인터내셔널 모뉴먼트(Model of the Monument to the Third International), 1920」 기념탑에서 그는 재료와 구축의 과정이라는 현실성을 강조하여 3차원의 실제공간과 다양한 재료간의 상호관계를 탐구하여 입체적 기하학적 형태를 중요하게 다루었다. 도널드 주드(Donald Judd)나 칼 안드레(Carl Andre)는 정방형 또는 장방형을 알루미늄 등의 금속성을 지닌 재료로 제작하거나, 색칠한 벽돌들을 미술관에



<그림 4-6> Carl Andre  
「Herm 1976」

늘어놓아 어떠한 감정적, 정서적 환기도 불러일으키지 않는 단순하고 기본적인 구조와 역시 무미한 재료들을 사용해서 오브제를 끝까지 물고 간 것이다. 실내건축공간에서의 단순성은 미적 가치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발달에 의해 가증해 진 것이다. 개방성에 대한 관심과 벽을 통한 공간의 연속성, 수평적 건축, 디테일에 있어 최소한의 사용, 벽면 표면의 전통적인 형태의 거부, 흰색 표면에 자연적인 빛의 유입 등이 벽에서 보여지는 단순성이다.

라이트의 「로비하우스, 1909」는 몇 개의 직사각형 공간체가 중앙의 굴뚝 주위에 모여있고, 그 직사각형 요소를 구조로 한 공간체는 폐쇄적이든 개방적이든 간에 정확히 구획되어져 있으므로, 입체주의적 구성을 보이고 있으며, 몬드리안의 수직선과 수평선의 엄격한 구성은, 데스털(De Stijl)파 건축가 게리트 리트벨트(G. Rietveld)의 주택작품에서 강조되었다. 알베르토 캄포 바에자는 Gasper 저택을 통해 자연적인 요소와 벽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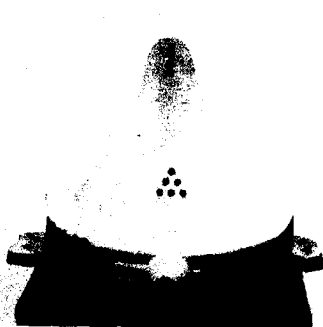
을 사용해서 극도의 미니멀적인 건축을 표현했고, 클라우디오 실베스트린(Claudio Silvesitrin)과 존 포우슨(John Pauson)에 의해 설계된 노이엔도르프 빌라(Neuendorf Villa)도 또한 벽과 자연적인 요소인 빛을 이용해 정신과 물질의 극단적인 추구를 시도한 작품이며, 지역적인 특성을 통해 극도의 단순성을 나타내고자 한 대표적인 건축가로 레고레타(Ricardo Legorreta)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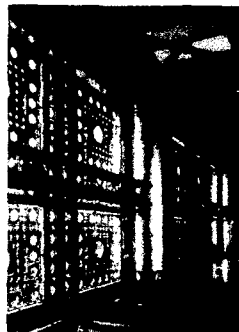
<그림 4-7> Ricardo Legorreta  
「멕시코 현대 미술관」

#### 4.5. 독립성

오브제의 미술에 있어서의 경향은 사물을 일상적 의미로부터 절연(絶縁)시키는 것이다. 어떤 특정한 사물을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나 기능에서부터 이탈(逸脫)시켜 다른 이미지로 대체시키는 것 즉, 오브제 그 자체가 독립적인 것이다. 그것은 신기술의 발달에 의해 구조로부터 해방되어 자립적으로 존재하게된 반중력적이며 자유로운 얇고 평활한 벽으로 표현된다. 즉 벽의 구조적 기능과 공간 한정 기능이 분리된 것이다. 뒤샹의 「샘」은 입체주의자들이 가졌던 미적인 의도가 없



<그림 4-8> Marcel Duchamp  
「샘」



<그림 4-9> Jean Nouvel  
「아랍 문화원 1987」

고, 오브제 그 자체로 완전히 독립적인 것이었으며, 그 외에도 단 레이(Man Ray, 1890-1976)는 「선물(Gift)」이란 작품 또한 대량생산된 하나의 공업 제품을 오브제로 선택하여 일상적인 맥락으로부터 가능한 한 독창적인 방법으로 이탈되어 본래의 기능을 철저히 상실하게 하였다.

반중력성, 비중력성으로도 표현되는 벽의 독립성은 중량감이 제거되어 대지에 고착되기보다는 부유하고 있는 듯한 효과를 나타내는 그로피우스의 바우하우스에서, 르 꼬르뷔제의 라 로슈 잔느레저택의 조적 재료와 구조가 동시에 숨겨지고 오직 불륨을 한정하는 면으로서의 벽에서 강조된다. 게리(Frank Gehry)나 하디드(Jaha Hadid)의 작품에서 보이는 중력에 반하

는 벽의 표현, 즉 뒤틀림, 변형 등은 이러한 비중력적인 특성을 표현하기 위해 시도된 것들이라 할 수 있다. 장 누벨(Jean Nouvel)의 작품 아랍 문화원의 외부 벽면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사건과는 무관한 스크린적인 역할로써 빛의 조절과 공업 생산된 재료를 사용하여 다중소점적인 빛과 재료 고유의 차가운 색감, 공업 생산품의 무한한 반복적 형태, 불특정한 형태의 표현들을 통해 건물 전체의 벽이 아주 가벼운 느낌을 주게 된다.

#### 4.6. 대중성

누보레알리즘과 팝아트에 이르러 오브제는 일상의 모습이 소재적, 대상적 차원을 떠나 '일상성' 그 자체가 주제로 끌어올려지게 되었고, 작가들은 대중 산업화에 양산된 모든 재료를 내면적 조형언어로 받아 들였다. 이들은 일상적 재료를 채택하면서 완성된 작품 자체보다는 이미지 전달을 위한 시각적인 표현에 관심을 두었다. 콤바인회화(Combine Painting)개념을 제시한 라우센버그(R. Rauschenberg)는 「코카콜라 플랜(Coca Cola Plan), 1958」에서 콤바인의 요소로 코카콜라병을 포함시켰는데, 콜라 병은 미국의 대중문화의 도상과 같은 것으로 마셔서 버려서 쓰레기로 변할 물건이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조각적인 부분들과 함께 제시됨으로써, 일상적인 인식으로서의 콜라 병과 면상을 요구하는 콜라병 사이에 갈등을 야기시킨다. 앤디 워홀(Andy Warhol)의 오브제 사용전략은 물개성적이고 일상적인 사물들을 흉내내 그것을 반복해서 제시하는 것이며, 대표 작품들로는 「브릴로 상자」, 「20개의 마릴린, 1962」, 「100개의 캔」 등이 있으며, 이 작품들을 통해 워홀은 이미지적 오브제를 계속 반복시켜 주브로 '특수'에서 '보편'으로 전환시킨다.



<그림 4-10> Andy Warhol  
「브릴로 상자 1964」



<그림 4-11> Robert Venturi  
「Best Products Catalog Showroom  
Facade Design」

공간에서의 대중성은 대중들에게 익숙한 형태나 장식을 도입함으로써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개념과 건물에서의 그 형태나 장식의 사용을 대응시켜 사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공유된 형이상학을 사용하거나 상징적 의미를 갖는 형태나 장식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용도이외에 전달하는 의미의 공유성과 심오성을 산출하였는데, 광고판과도 같은 가입면의 사용이 그 한 예라고 하겠다.

## 5. 결론

근대와 현대의 시기를 거치면서 추상예술에서의 오브제와 실내건축 공간에서의 벽은 공통된 특징을 형성함에 따라 현대의 다양한 표현성과 개념의 공유를 기반으로 더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모습으로 전개되었다. 오브제의 전개과정과 특성 및 표현형식을 탐구하여 그 두드러지는 조형적 특성 6가지-다시점, 중첩, 역동성, 단순성, 독립성, 대중성-를 추출할 수 있다. 벽의 특징을 살펴보면 요소적 특성과 구성적 특성을 중심으로 분류한 벽의 특성을 오브제의 조형원리에 비추어 분류할 수 있으며, 벽의 특성과 오브제의 조형특성과의 표현양상별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추상예술의 특성을 인식하고 실내건축과의 결합원리를 고찰해 봄으로써, 벽에 나타난 특성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와 분석을 통해 오브제와 공간에서의 벽의 표현상관성을 규명하고 오브제에 의해 각각의 이미지가 실내공간의 벽 내에서 결합되는 양상을 탐구하여 본 결과 오브제는 실내공간의 한 구성요소인 벽의 변화와 발전에 질서를 부여하고 그 특징이나 이념에 있어서 영향력이 있으며,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으며, 벽뿐만 아니라 오브제성을 지닌 그 밖의 다른 실내공간 구성요소들의 오브제 수용의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 참고문헌

1. 강홍구, 현대미술의 기초개념, 1995, 채원
2. 김급미, 현대미술의 동향, 1987, 미진사
3. 김수기, 현대미술의 기초개념, 1995, 채원
4. 김현화, 20세기 미술사, 1999, 한길아트
5. Colin Rowe, 윤재희 譯, The Mathematics of the villa and other Essays :Transparency ; Literal and Phenomenal,1984, The Mit Press
6. Colin Rowe, 윤재희 외 譯, 근대건축론집, 1994, 세진사
7. N. Pevsner, 김정신 외 譯, 근대건축과디자인의 원천, 1986, 태림문화사
8. Robrt Venturi, 임창복 譯, 건축의 복잡성과 대립성, 1985, 기문당
9. Rosemary Lambert, 이석유 譯, 20세기 미술사, 열화당
10. 루돌프 아르하임, 김춘일 譯, 미술과 시지각
11. On Minimalism in Architecture, AD 9407
12. 김광현, 콜린로우의 “현상적 투명성”에 관한 분석, 대한 건축학회 논문집 2권 1호 1986. 2
13. 김은주, 루이스 칸 건축에 나타나는 벽의 형태표현과 그 영향에 관한 연구, 1994,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4. 김준호, 모더니즘 건축형태와 회화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1995,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5. 김진성, 20세기 추상예술이 현대건축의 형태표현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1997,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6. 박길룡, 한국근대건축에 있어서 즉물성에 관한 연구, 1976, 홍익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17. 위성용, 설치미술에 있어서 공간과 오브제에 관한 연구, 1997,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8. 윤난지, 전후(戰後)기하추상 ; 키네틱 아트와 미니멀 아트, 공간, 9208
19. 이동엽, 현대미술에 나타난 오브제(Object)에 관한 연구, 1997, 고려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20. 이석주, 현대미술에 있어서의 오브제의 유형과 의미, 1980,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1. 이인옥, 대중문화의 관점에서 본 환경예술로서의 Pop Art와 환경디자인에의 적용에 관한 연구, 1995,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2. 이일형, 건축에서 장소성을 구현하는 벽의 의미에 관한 연구, 1986,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